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1. 5. 26.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바이오신산업과
담당	과장 김연주, 바이오·헬스케어팀장 임대화, PM 김희정 (032-453-7654)

산업부 1차관, 송도서 바이오기업 투자어로·규제개선 논의

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 바이오기업 투자 간담회 개최

정부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 전달·바이오기업 투자계획 및 애로사항 등 점검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주재로 ‘바이오기업 투자 간담회’가 개최됐다고 밝혔다.
- 바이오 기업의 투자 계획과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장 차관과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비롯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,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9개사의 대표자·임원 등이 참석했다.
- 장 차관은 간담회에서 “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단기간 내 확보한데 이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다”며 “이같은 성과는 바이오 기업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한 덕분”이라고 치하했다.
- 그는 또 “새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·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며 “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이에 대해 바이오 기업인들은 “대통령께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만큼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”고 화답하며 바이오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, 세제, 인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.
- 장 차관은 “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원부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필수적”이라고 강조하며 “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 애로 해소 및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,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”고 답했다.
- 간담회에 이어 장 차관은 바이오시밀러 선도기업인 셀트리온을 방문, 바이오 의약품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유럽·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.
- 인천경제청은 송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, 그리고 산·학·연 기관들과 더욱 활발하게 교류·협력해 바이오 분야의 산업발전을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.

1. 방문배경

-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대표적인 클러스터인 송도 바이오 단지를 방문하여 기업 투자 계획·애로 청취 및 현장 점검

2. 방문개요

- (일시) '22.5.26(목) 15:00~17:30
- (장소) 투자 간담회 G타워(경자청) → 현장방문 셀트리온
- (참석자) 산업부 1차관, 인천경제청 차장, 바이오기업* (9) 등
 - * 국내기업(6) : 삼성바이오로직스·에피스, 셀트리온, SK바이오사이언스, GC녹십자, 아미코젠
 - 외투기업(3) : 싸토리우스, 머크, 써모피셔

3. 세부일정

	시 간	세부 내용	비 고
기업 간담회	15:00~15:02 (2')	· 기념촬영	
	15:02~15:10 (8')	· 인사말씀	산업부 차관 경제청 차장
	15:10~16:00 (50')	· 기업별 투자 계획 발표 및 애로 건의	기업별 5~6분
	16:00~16:27 (27')	· 질의응답	
	16:27~16:30 (3')	· 맺음말씀	산업부 차관
현장방문	16:30~16:45 (15')	· 이동 (G타워 → 셀트리온)	
	16:45~17:30 (45')	· 셀트리온 현장 방문	

* 간담회 인사말씀까지 대외 공개